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연구 동향*

이보라** · 김교성***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수행된 개발도상국 연구의 동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학문적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7~2016년까지 발표된 총 66편의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특성에 따른 기술적 분석과 연구주제에 따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구주제도 일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구주제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확장이 요구되며, 특히 빈곤과 젠더 이슈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연구도 부족하며, 지역(아시아)적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sherlock21c@cau.ac.kr)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kyoseong@cau.ac.kr)

I. 서론

최근 국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공적개발원조(ODA)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 분야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 동일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사회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적용이 시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독특한 모델이 반드시 개발도상국에서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유효하다 하더라도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의 부정적 결과도 함께 전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의 학문적·실천적 역할과 축적이 중요하며, 동시에 이를 총망라하는 학문적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인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이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과제와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개발도상국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밖에 없다. 이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회복지 분야라고 간주하지 않는 민간단체조차 현장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연관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 사례를 분석한 미시적인 접근부터 개별국가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을 제안한 거시적인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복지 분야의 학문적 노력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발도상국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미 보건, 교육, 농업, 행정

1) 우리나라는 1996년 세계은행의 개발차관 대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고, 2010년 OECD DAC의 회원국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등의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임도빈·조원혁·차혜영·정지수·이민아, 2013; 박명배·신정우·남은우, 2014; 박환보·남신동·윤종혁, 2016; 김동훈·허장, 2016).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계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학문적 검토는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타 분야와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학문적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이며, 기본적인 특성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지역,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형태의 범주체계에 따른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제의 동향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 내용분석 중심의 연구동향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일종으로 구조적인 패턴 및 경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 분야의 개발도상국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개발도상국 관련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재까지 제한된 형태로 진행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국제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현재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칭하는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용어로는 '국제사회복지(international social work)'의 개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복지 개념은

매우 논쟁적이며, 현재까지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 개념을 정리하여 범주화한 선행연구(Midgley, 2001; Healy, 2010; Hugman et al., 2010)를 통해 국제사회복지 개념부터 확인해 보자.

먼저 국제사회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Midgley(2001: 24-26)는 국제사회복지를 다양한 접근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사회복지는 ① 사회복지사가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기술과 지식, ② 다른 국가의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결 및 교류, ③ 초월적, 광범위한 글로벌 환경에서의 세계적 인식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Healy(2010: 37-46)는 국제사회복지를 국제적 전문활동과 사회복지 전문직 및 그 구성원들의 국제 활동 수행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난민, 이주, 타국민 관련 업무, 국제입양, 국경에서의 사회복지 등의 ‘국제 관련 국내 사회복지 실천 및 옹호’, ② 사회복지 경험과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전문교류’, ③ 국제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실천’, ④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정책 개발 및 옹호’ 등이다. 한편 Hugman et al.(2010: 631-634)은 국제사회복지의 다섯 가지 요소를 다소 다른 차원에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①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이동에 의한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활동, ②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 이주민들과의 활동, ③ INGO나 준정부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속된 활동, ④ 여러 국가 간 교류나 프로젝트 협력, ⑤ 세계적 맥락과 지역맥락의 이해(glocalizaion)에 기반한 국내 활동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범주화한 국제사회복지 개념과 내용은 활동범위에 따라 국내(domestic), 국외(overseas), 국가 간(international), 초국가적(transnational) 활동범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표 1〉 참고), 이 중 개발도상국 지원 영역은 국외 활동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 국제사회복지 개념과 구성요소

활동 범위	국내 (domestic)	국외 (overseas)	국가 간 (international)	초국가 (transnational)
Midgley (2001)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 교류	세계적 인식 창출
Healy (2010)	국내 사회복지 실천 및 옹호	국제개발업무	전문가교류	국제정책 개발 및 옹호
Hugman et al (2010)	국경을 넘나드는 클라이언트 대상 실천	사회복지사의 국가이동 활동 INGO, 국제기구	전문가 교류 및 협력	세계적 맥락을 고려한 지역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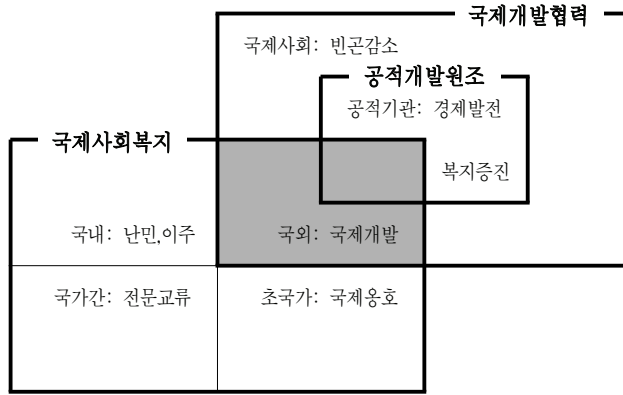
한편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²⁾의 개념은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법령에 의한 정의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편이다.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으로 정의된다(ODA Korea, 2017). 국제사회는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2000년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합의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정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2)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서구 대학의 ‘개발학(development studies)’ 전공이 국내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학’으로 신규 개설된 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계간지명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채택한 점,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의체로서 1999년에 설립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2012년 ‘한국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로 단체명을 변경한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Development Assistance)의 개념과 유사하여 다소 혼란 속에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하면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OECD DAC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증여율 25% 이상의 양허성 원조'로 정의한다(OECD, 2008: 1). 다시 정리하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의 목적을 공유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은 공공·민간 영역의 국제사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공적개발원조(ODA)는 공적기관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인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은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목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사회복지는 필연적으로 중첩된 영역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조윤호·김재환, 2015). 상술한 국제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의 개념들을 구조화하여 정리해보면, 명확하게 중첩된 영역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두 분야 간 연결지점은 국제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국외 활동영역, 즉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업무에 해당되고,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 지원 중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개발도상국 연구 동향이 바로 이 '국제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의 교차영역 혹은 지점'에 해당된다.³⁾ 위와 같은 개념적 정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대상 수집의 핵심 단어(keyword)를 '사회복지와 개발도상국', '국제사회복지와 개발도상국', '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 '사회복지와 ODA(공적개발원조)'로 설정하였다.

3)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에서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복지 혹은 다문화 연구를 배제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개발도상국 연구는 국제사회복지 중 '국외' 영역만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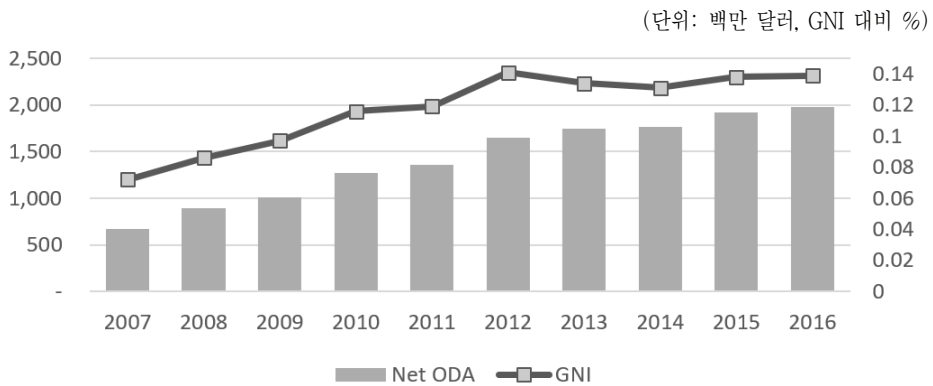


〈그림 1〉 국제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적 구조

2.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실천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 현황의 동향과 규모, 유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국내 사회복지를 담당하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국제무대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실천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다일공동체,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을 필두로 하여, 2000년대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 돕는사람들, 밀알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 선의복지재단 등이 합류했고, 최근에는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우림복지재단, 펄벅재단 등도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 NGO인 코피온은 국제사회복지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전공생들의 해외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내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27개 응답단체 중 다수가 국내 사회복지활동을 기반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해외사업 비중이 국내사업 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했다(KCOC, 2016: 10). 국내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2017년부터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나눔과 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개발도상국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만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도 설립되는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핵심분야인 ODA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ODA 규모는 2007년 6억 6,950만 달러(약 7,364억 원)에서 2016년 19억 7,960만 달러(약 2조 1,800억 원)로, 지난 10년간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그림 2〉 참고). 이는 2016년 기준 GNI 대비 0.14%에 해당되는데, 향후 OECD DAC 회원국으로서 2020년까지 GNI 대비 0.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⁴⁾ 향후 그 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OECD, Net ODA (indicator), doi: 10.1787/33346549-en (접근일: 2017.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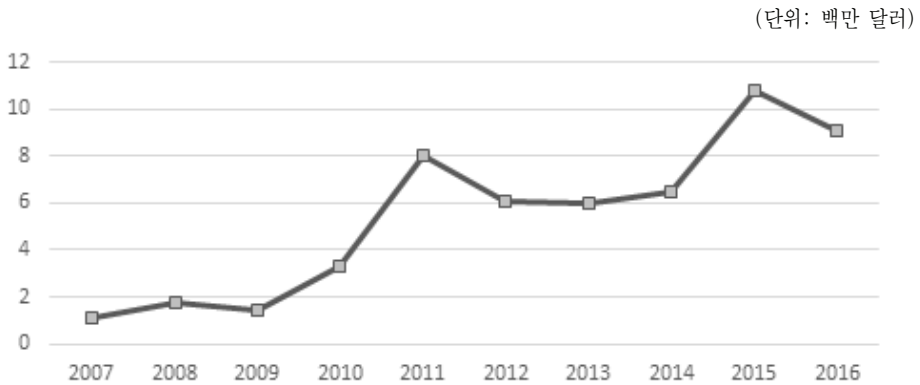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Net ODA 규모

ODA 규모의 확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체 ODA 안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ODA 실적 중 사회/복지서비스 유형⁵⁾의 총지출액을 추출하여 살펴보면, 2007년 1억 1,300만 달러(1,243억 원)에서

4) 참고로 UN의 ODA 집행예산 권고비율은 GNI 대비 0.70%이다.

5)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ODA통계에는 OECD 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에 따른 ODA 실적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CRS 코드는 총 300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코드는 16010(사회/복지서비스), 16011(사회보호/복지서비스정책, 계획 및 행정), 16012(사회보장), 16013(일반연금), 16014(공무원연금), 16015(사회서비스: 청년개발, 여성, 아동) 등이다. 이 중 16010(사회/복지서비스) 외 다른 코드는 2016년부터 추가되어 현재까지는 관련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2016년 9억 1,100만 달러(9,110억 원)로 크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참고). 지난 10년간 전체 ODA 지원규모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영역의 지원규모는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2015년 KOICA 해외봉사단의 전체 파견인원(2,300명)의 8.5%인 200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분야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가 확인되며, 향후 파견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ODA 통계 중 CRS Code 16010(사회/복지 서비스) 항목 추출
 자료: 재정기획부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접근일: 2017.11.13.)

〈그림 3〉 ODA의 사회/복지 서비스 유형 지출액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와 개발도상국을 연결하기 위한 현장과 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고조되고 가운데, 향후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역할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의 동향을 총망라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유사 연구들 중 국제사회복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박주현 · 김윤나, 2016)는 세계빈곤과 불평등을 주제로 분석을 시도했으나,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개발도상국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동향 분석 부

재의 심각성은 타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이미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 국제개발 행정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메타분석(임도빈 외, 2013)과 국제개발협력 연구동향을 보건 분야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박명배 외, 2014), 교육개발협력 연구동향 분석(박환보 외, 2016),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연구동향 분석(김동훈 외, 2016)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6~2015년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국제개발 연구동향과 과제를 탐색한 연구(주한나·손혁상·이희진, 2016)는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도 함께 시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학문분야는 전체기간동안 단 6편의 논문만이 포함되어, 전체 846편 중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개발 행정분야 연구동향 분석(임도빈 외, 2013)에서 수행한 연구주제의 군집화(clustering) 결과, 사회복지로 명명되는 군집을 발견되었으나, 해당 클러스터 밀도가 낮은 수준이며, 관련 연구들의 이질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회복지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⁶⁾

개념적 정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 분야 간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특히 ODA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복지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 이창호(2012)는 ODA의 영역이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사회복지 분야가 어떻게 ODA를 주도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추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식 사회복지의 국제적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면서, UN 내부의 개발 프로그램의 주류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영향력이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사회복지 분야가 국제사회복지를 확장해야 할 당위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이창호, 2012: 325).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행된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6) 다만 국제개발과 국제개발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의 관련 연구들이 다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살펴보고, 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의 연결지점이 포함된 연구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문헌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국내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발표된 개발도상국 관련 논문이다. 국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를 처음 다룬 논문은 버마의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을 고찰한 감정기(1991)의 연구이다. 이후 2006년까지 약 15년간 발표된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는 5편(권순원, 1997; 한도현, 1998; 김대철, 1999; 최동주·문은영·강문구, 2004; 노충래·홍진주, 2006)에 불과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7년에 7편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관련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2016년의 1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논문에는 국내 학술지, 전문잡지, 학술대회 발표자료에 수록된 논문들과 주요 연구보고서가 포함되며 석·박사 학위논문은 제외된다. 누락되는 논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헌검색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COSI(COre, Standard, Ideal) 모델을 사용했다(Bidwell & Jensen, 2004).⁷⁾ Core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디비피아(DBPia) 등의 3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진행했으며, 전략적인 검색을 위해 검색어를 중심어(main keyword)와 공통어(common keyword)로 구분했다. 중심어는 ‘개발도상국’, ‘ODA 지원규모 상위 20개국’,⁸⁾ ‘국제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

7) Core(핵심검색범위)는 핵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진행하고, Standard(표준검색범위)는 핵심 잡지에 대한 수기 검색과 핵심 데이터베이스 외 다른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Ideal(이상적인 검색범위)은 학술대회 초록집과 출판되지 않은 문헌 등을 포함한다(김수영 외, 2011: 24).

8)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ODA 지원규모 상위 20위 국가를 추출했다. 해당 국가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우

‘ODA’로 선정했고, 공통어는 ‘사회복지’로 지정했다. Core 검색 결과는 <표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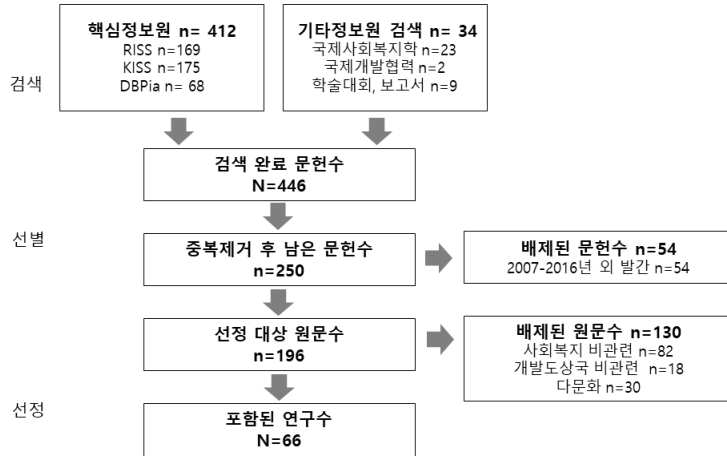
<표 2> Core 검색 결과

Main Keyword	Common Keyword	RISS	KISS	DBpia	합계
개발도상국	사회복지	30	26	8	64
지원 상위 20개국		82	104	26	200
국제사회복지		15	1	15	31
국제개발협력		32	35	3	70
ODA		10	9	16	35
총계		169	175	68	412

Standard 검색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사회복지학회의 ‘국제사회복지학’의 전편(23편)을 포함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계간지인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복지’ 혹은 ‘복지’와 관련된 논문 2편을 추출하여 총 25편을 추가했다. Ideal 검색은 사회복지관련 학회 및 기관의 학술대회 자료집 및 보고서를 대상으로 수기검색을 진행하여 총 9편의 논문을 포함했다. COSI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논문은 총 446편이다.

수집된 논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을 제외하고 동일저자의 학술지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여 포함했다. 둘째, 분석기간인 2007~2016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타 분야 학술지 논문 중 제목에 ‘사회복지’, ‘사회사업’, ‘복지’가 명시되지 않은 논문은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외했다. 넷째,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개발도상국과 관련이 없는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외했다. 다섯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 인구집단(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다문화’ 연구로 분류하여 제외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문헌은 총 66편이다(<그림 4> 참고).

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네팔, 이라크,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페루,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미얀마, 에콰도르, 이집트 등이다.



〈그림 4〉 문헌 선정 흐름도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범주체계에 따른 ‘기술적 분석’과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위한 범주체계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지역’,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수집형태’의 4개 범주로 구성했다(〈표 3〉 참고).

먼저 연구지역의 구성범주는 ‘해외’와 ‘국내’로 구분했다. 개발도상국 연구에서 지역에 대한 분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해외지역 연구에는 특정국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해당국가명을 그대로 표기했으며, 국내지역 연구에는 특정국가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학문분야, 실무자, 정책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구성범주는 ‘개인’, ‘기관’, ‘정책’, ‘국가’, ‘학문분야’로 구성했다. 연구방법의 구성범주는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세분화했다. 양적연구에는 설문조사 혹은 2차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해당되며, 질적연구에는 생애사, 심층면접, 근거이론 등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혼합연구는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모두 사용한 연구를 의미하며, 문헌연구에는 기존의 문헌자료,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논증의 방식을 취한 비경험적 연구가 포함된다. 자료수집의 구성범주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1차자료’와 기존문헌, 보고서, 통계기관의 원자료(raw data) 등을 활용한 ‘2차자료’로 구성했다. 기술적 분석

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23.0을 활용했다.

〈표 3〉 기술적 분석을 위한 범주체계

범주	구분	세부범주
연구지역	해외	해당국가
	국내	학문분야, 실무자교육, 정책 등
연구대상	개인	아동, 청소년, 가족 등
	기관	기관
	정책	정책
	국가	국가
	학문분야	학문분야
연구방법	양적연구	빈도분석, T검증, ANOVA, 회귀분석 등
	질적연구	생애사, 사례연구, 심층면접, 근거이론 등
	혼합연구	양적연구 + 질적연구
	문헌연구	문헌고찰, 자료정리 등 비경험적 연구
자료수집	1차자료	설문지, 심층면접, 현장방문, 관찰 등
	2차자료	정부·기관발표 통계 및 보고서, 원자료 등

본 연구에서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 중 하나이다.⁹⁾ 기존 연구동향 분석은 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많은 분석시간의 소요, 분류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등의 한계가 있다(최재성 외, 2016: 7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동향 분석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학문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고수정 외, 2013; 최재성 외, 2016; 감정기 외, 2016). 연구동향 분석에 적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키워드(keyword) 분석, 인용(citation) 분석, 공저자(co-authorship) 분석으로 구분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①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② 언어구조를 공간적으로 표시하고 텍스트 간 관계를 시각화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③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전체 텍스트가 전달

9) 문헌정보 분석에 최초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Price(1965)의 연구이며, 1년간 발행된 논문의 참고문헌 정보를 이용하여 학문분야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④ 단어들의 구조적 분석을 파악할 수 있으며, ⑤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수상, 2014: 54). 따라서 개발도상국 연구의 패턴 및 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주제어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성(centrality) 분석'과 하위 주제 그룹을 발견하기 위한 '응집성(cohesion)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했다. 키워드의 단순 출현빈도 분석은 해당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서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키워드들의 동시 출현을 기준으로 키워드간의 연결(link)을 구성하고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실시했다. 연결중심성 분석은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중심성 측정방법으로서, 해당 노드(node)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해당 노드가 자신이 속한 지역적 연결망 안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준다(Scott, 2000: 83). 응집성(cohesion) 분석을 위해 커뮤니티(community) 분석도 실시했다. 커뮤니티 분석은 같은 커뮤니티 내의 속한 노드들 간의 연결 밀도가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 간의 연결 밀도보다 긴밀한 그룹을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여 하위 커뮤니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를 키워드 분석에 적용하면,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의 군집분류가 가능하여 하위 주제 그룹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분류기준은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에 기반을 둔 GN 알고리즘(Algorithm)을 사용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Netminer 4.0을 활용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키워드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논문에 키워드가 제시된 경우는 그대로 활용했으며, 제시되지 않는 경우 제목, 초록, 목차 등에서 키워드를 직접 추출했다. 키워드 정제 작업은 이수상(2012: 102)이 제시한 교정, 통제, 제거 작업에 따라 수행했다. 교정작업에서는 단어의 띄어쓰기 등을 단순 교정했으며, 통제작업에서는 동의어와 유사어를 통일했다. '개발 NGO', '사회복지 NGO', 'INGO', '국제 NGO', '민간비영리'는 'NGO'로, '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는 'ODA'로, '지역사회', '지역개발', '농촌지역개발'은 '지역사회개발'로, '대응방안', '대처전략'은 '대응전략'으로 통일했다. 제거작업에서는 키워드 검색과정에서 공통어(common keyword)로 사용한 '사회복지' 키워드를 제거했고, 기술적 분석의 범주체계

에 해당되는 개별 국가명과 사례연구, 생애사 등의 연구방법 관련 키워드를 제거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정제된 키워드는 총 278개이다.

IV. 분석결과

1. 연구특성의 동향 : 기술적 분석 결과

기술적 분석에서는 분석기간을 3단계로 구분했다. 2010년 한국의 OECD DAC가입을 기점으로 전후 3년을 분석1기와 분석2기로 구분하고, 최근 4년을 분석3기로 구분했다. 연구동향의 추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지역,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수집 등 연구특성에 따른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먼저 연구지역을 살펴보면, 해외지역 연구가 총 42편(63.6%)으로, 국내지역 연구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분석1기에 비해 분석3기의 해외지역 연구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분석3기에 들어 새롭게 연구가 시작된 국가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에서 개별국가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몽골 12편, 캄보디아 5편, 네팔 4편, 베트남 3편 등으로, 페루 1편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국가비교를 실시한 연구도 5편 포함되었다. KOICA(2016: 9)에서 발표한 '지역별 대외무상원조실적'에서 아시아 39.1%, 아프리카 20.9%, 중남미 10.7% 순으로 나타난 사실과 비교하면, 개발도상국 연구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필요성이 부각된다. 국내 연구에는 학문분야, 실무자교육, 정책 등에 관한 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2기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연구특성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결과

특성	구분	분석1기 (2007~2009)	분석2기 (2010~2012)	분석3기 (2013~2016)	합계
연구 지역	해외	10 (90.9)	5 (31.3)	27 (69.2)	42 (63.6)
	국내	1 (9.1)	11 (68.8)	12 (30.8)	24 (36.4)
연구 대상	개인	5 (45.5)	4 (25.0)	8 (20.5)	17 (25.8)
	기관	0 (0.0)	2 (12.5)	7 (17.9)	9 (13.6)
	정책	2 (18.2)	4 (25.0)	11 (28.2)	17 (25.8)
	국가	2 (18.2)	0 (0.0)	4 (10.3)	6 (9.1)
	학문분야	2 (18.2)	6 (37.5)	8 (20.5)	16 (24.2)
연구 방법	양적연구	4 (36.4)	2 (12.5)	6 (15.4)	12 (18.2)
	질적연구	0 (0.0)	3 (18.8)	9 (23.1)	12 (18.2)
	혼합연구	0 (0.0)	0 (0.0)	2 (5.1)	2 (3.0)
	문헌연구	7 (63.6)	11 (68.8)	22 (56.4)	40 (60.6)
자료 수집	1차자료	4 (36.4)	4 (25.0)	7 (17.9)	15 (22.7)
	2차자료	7 (63.6)	12 (75.0)	32 (82.1)	51 (77.3)
합계		11 (100.0)	16 (100.0)	39 (100.0)	66 (100.0)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주민 등 개인대상 연구와 ODA 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대상 연구가 각각 17편(4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범주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 들어 연구대상이 보다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1기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다소 편중되었으나, 분석3기에 들어 기관(7편, 17.9%), 정책(11편, 28.2%), 국가(4편, 10.3%), 학문분야(8편, 20.5%)로 나타나 고르게 분산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증가 추세는 개발도상국에 집중하는 전문적인 분야로서의 사회복지 학계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방법에 기초한 동향을 보면,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등의 모든 연구방법 유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연구동향 분석(황성철, 2002; 김교성, 2011; 최재성 외, 2016)에서 양적연구가 부각되는 현상과 대조적인 결과이다.¹⁰⁾ 문헌연구의

편중 현상은 관련 연구들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이라는 물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실증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정된다. 최근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질적연구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분석3기 들어 질적연구(9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례연구의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선택하는 현상이다. 특정 연구방법의 방법론적 우월성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문적 발전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양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일부 필요해 보인다.

자료수집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뷰, 설문지 등을 통한 1차자료 연구는 2차자료 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식기관의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전 기간 동안 두 편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보고서, 기관보고서, 선행연구, 정부 및 국제기관의 기존 통계(existing statistics)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개발도상국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가능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준다. 경험적 연구는 개발도상국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접근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대안은 공식적인 기관의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통계기관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된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주제의 동향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결과

네트워크분석에 사용한 키워드는 총 278개이고, 분석1기(2007~2009년) 39개, 분석2기(2010~2012년) 80개, 분석3기(2013~2016년) 159개이다. 핵심주제어를 파악하기 위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고 상위 10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표

10) 감정기 외(2016)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학의 연구동향도 2000년 이전에는 문헌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1년 이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에 제시했다. 연결중심성은 해당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들의 수를 측정하며, 연결중심성이 높으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주제어로 간주한다.

전체기간동안 ‘국제사회복지’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NGO’, ‘국제개발협력’, ‘ODA’, ‘국제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 ‘해외지원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1기의 경우 소수의 연구가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어 키워드 동시출현빈도가 낮아 연결중심성의 점수가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연구동향과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회복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 1위를 유지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연구가 주로 국제사회복지의 하위분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합의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ODA’의 키워드는 2010년 이후 핵심주제어로 등장하여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개념적 구조화 과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개발도상국 연구가 국제개발협력이나 ODA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개발협력이나 ODA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ODA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학 또는 정치학 분야의 연구자와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분석1기에서 ‘사회복지사’ 키워드가 핵심주제어로 나타났다가 이후 사라진 반면, 이후 ‘국제사회복지사’가 이를 대체하는 핵심주제어로 등장한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지구화된(globalized)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국제사회복지사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학문분야 전체의 교육적 노력과 새로운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해외지원사업’, ‘사회복지제도’ 등이 핵심주제어로 등장하는데,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거나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현지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지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고민되어야 한다(한재광, 2010: 2).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구

체적인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의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5〉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상위 10개 키워드

순위	분석1기 (2007~2009)		분석2기 (2010~2012)		분석3기 (2013~2016)		전체 (2007~2016)	
1	소득재분배	.171	국제사회복지	.534	국제사회복지	.180	국제사회복지	.241
2	사회적연대	.171	NGO	.379	사회보험	.115	NGO	.187
3	사회복지사	.171	국제개발협력	.310	국제개발협력	.115	국제개발협력	.155
4	NGO	.171	ODA	.259	ODA	.098	ODA	.123
5	사회복지운동	.171	국제사회복지사	.241	사회복지서비스	.098	국제사회복지사	.118
6	사회복지제도	.171	해외지원사업	.190	NGO	.098	사회복지정책	.102
7	사회복지정책	.171	현장	.155	국제사회복지사	.090	해외지원사업	.091
8	사회복지서비스	.143	주민	.155	사회복지정책	.090	사회복지서비스	.086
9	사회보험	.143	성찰	.155	노인복지	.082	사회보험	.086
10	사회보장	.143	사회복지실천	.155	인적자원개발	.074	사회복지제도	.070

2) 커뮤니티(community)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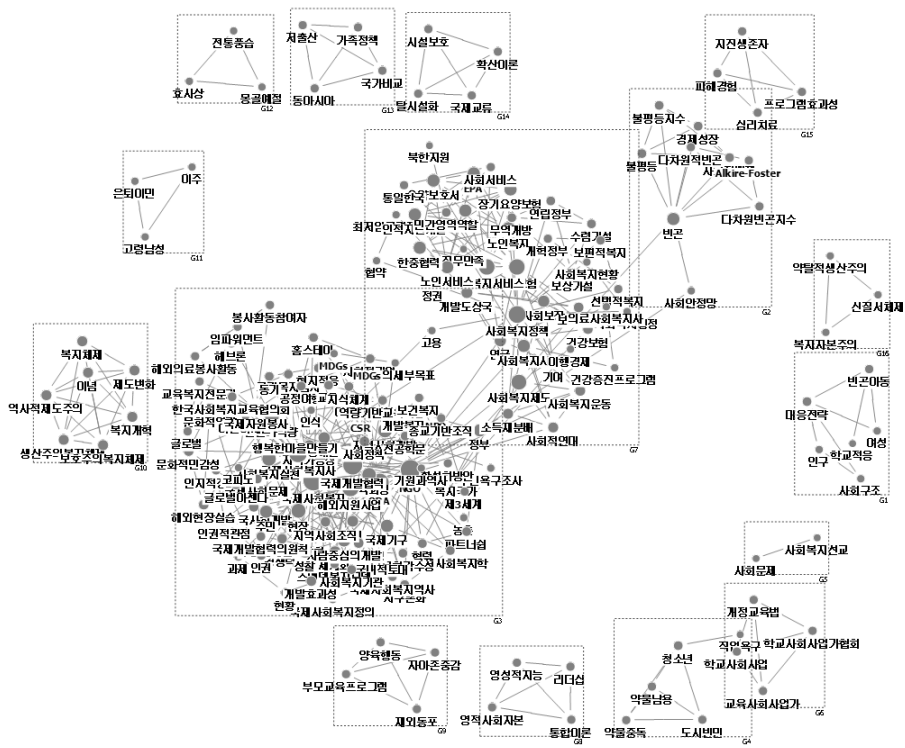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개발도상국 연구의 하위주제 그룹을 발견하기 위해 커뮤니티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가장 적절한 군집분류(clustering)는 16개의 하위그룹으로 구성된 경우로 나타났다.¹¹⁾ 해당 하위그룹들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2개의 대규모 하위그룹과 14개의 소규모 하위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하위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풍성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14개의 하위그룹들은 다른 하위그룹과의 연결성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분절적인 다수의 단일연구들을 의미한다.

먼저 14개의 소규모 하위그룹 중에서 눈여겨볼만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상대적으로 큰 하위그룹을 형성한 ‘불평등’, ‘사회적배제’, ‘다차원적 빈곤’ 등의 키워드를 연결하는 ‘빈곤’ 관련 그룹이 관찰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이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11) 해당 군집분류의 경우, 군집분류의 적절성(best cut)을 판단하는 모듈성(modularity)의 값이 32.413으로 나타났다. $3.5 \leq \text{modularity}$ 이면 ‘우수’(excellent)로 평가한다(Cyram, 2017: 215).

이러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제1목표를 빈곤감소로 설정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개발도상국 관련 빈곤연구는 중심부와 다소 거리가 있고, 소수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빈약한 모습이며, 다른 그룹들과의 밀접한 연결을 보이지 않아 다소 아쉬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시적인 차원의 하위주제로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및 직업육구’(박보은 외, 2007; 최유미, 2008), ‘영적 및 종교적 영역’(도승자, 2011; 강영실, 2008), ‘학교적응’(주한나 외, 2007) 등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심리치료’(고주애 외, 2016), ‘시설보호’(박숙경, 2015), ‘학교사회사업’(성민선, 2008)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심리치료’ 주제의 등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난 지원에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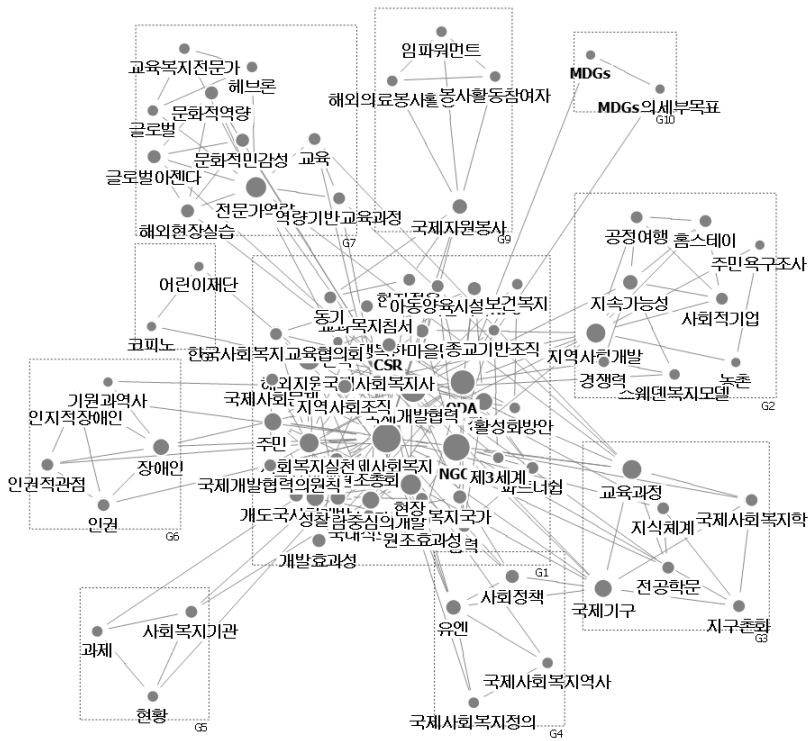
〈그림 5〉 2007-2016년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거시적인 차원의 하위주제로는 ‘복지체제’(강혜자, 2013)와 ‘복지자본주의’(앤드류 로서 외, 2016)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각각 브라질의 보호주의 복지체제와 인도네시아의 약탈적 생산주의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전 초기 선택한 복지체제의 성격을 통해 향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체계화된 사회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시행착오와 교훈을 반영하는 세심한 연구의 출현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사회복지 연구에서 복지체제나 복지국가와 같은 거시적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다(고수정 외, 2011; 김정기 외, 2016).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문분야의 강점 영역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향후 개발도상국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소 독특한 주제로는 ‘전통풍습 및 효사상’(아유씨바트슈흐 외, 2015) 연구가 관찰된다.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개발도상국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개별국가의 풍습, 사상, 관습 등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고령 남성의 은퇴이민(김현정, 2013)과 재외동포의 부모교육(이혜원, 2011) 등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지구화 시대에 이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로 이동한 개발도상국 출신 인구집단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한 우리 국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2개의 대규모 하위그룹을 살펴보자. 세밀한 관찰을 위해 2개의 하위그룹에 포함된 키워드를 각각 추출하여 커뮤니티 분석을 재실시하고, 각각 국제사회복지 영역(〈그림 6〉참고)과 사회복지정책 영역(〈그림 7〉참고)으로 시각화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난 첫 번째 하위그룹은 ‘국제사회복지’ 영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해당 영역의 중심부를 살펴보면, ‘국제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 ‘ODA’, ‘NGO’가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키워드의 연결중심성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위그룹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들의 조밀한 구조는 최근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 영역이 국제개발협력 및 ODA, NGO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의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유된 키워드로는 ‘해외지원사업’, ‘사회복지실천’, ‘현장’, ‘주민’, ‘지역사회조직’ 등의 개발도상국 현장관련 키워드와 ‘성찰’, ‘사람 중심의 개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다문화감수성’ 등의 가치지향적 고민을 담은 키워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GO’가 핵심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사회복지의- 수행기관으로서 NGO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발견이다. 국제개발협력이나 ODA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로 사회복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INGO들의 활동이 지적되기도 한다(이창호, 2012: 325). 이는 실제 사회복지 분야가 개발도상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NGO 혹은 INGO와의 관계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경계를 지을 것인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김미경, 2008; 안숙희, 2010; 한재광 외, 2013; 박미옥, 2015; 조운호 외, 2015), 그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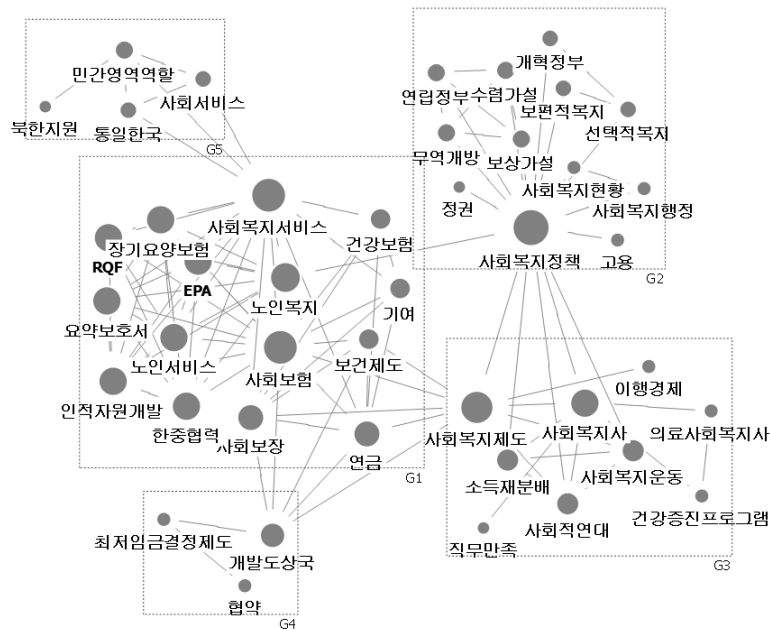


〈그림 6〉 국제사회복지 영역의 2007-2016년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다음으로 국제사회복지 영역의 주변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 ‘전문가역량’, ‘교육과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하위그룹이 돋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공정여행’, ‘주민육구’,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연결하는 ‘지역사회개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장관련 키워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별도 하위그룹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수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주제가 다양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은 해당 국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식민주의’ 실천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대화와 행동을 위한 공간 창출, 지역사회와의 연대적 활동 등이 필수적이다(Ife, 2007: 320). 일방적인 개입주의적 실천을 지양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개발 연구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한 경험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역량’, ‘교육’, ‘문화적 민감성’, ‘해외현장실습’, ‘글로벌 아젠다’ 등을 연결하는 ‘전문가 역량’ 관련 키워드들이 발견되었다. ‘전문가 역량’ 키워드는 ‘전공학문’, ‘국제사회복지학’, ‘국제기구’, ‘지식체계’ 등을 연결하는 ‘교육과정’ 키워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제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과 교육과정,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문가 역량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상술한 기술적 분석에서 ‘학문분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강남대(국제사회복지), 성공회대(NGO와 사회복지), 성균관대(국제개발협력), 숭실대(NGO와 국제사회복지), 중앙대(국제사회복지) 등 2016년 기준 총 28개 학부 및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국제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다(박선희, 2016: 8). 2011년 기준 12개교(김인숙, 2011: 20)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미래 해외현장 파견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더욱 확장될 것이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제사회복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대규모 하위집단은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그림 7> 참고).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 키워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 하위집단의 키워드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단위 정책과 제도를 다룬 연구들이 비

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정부기관 보고서와 통계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의 문헌연구가 많았고, 정교한 비교나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분야의 연구가 시작단계임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부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통일한국’ 키워드도 눈여겨볼만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북한 관련 연구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민기채, 2011: 6).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림 7> 사회복지정책의 2007-2016년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주제가 어떤 연결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진행된 개발도상국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주제에 대한 수직적 확장이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연구는 수량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연구주제도 다소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의 수량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연구주제에 대한 수평적 확장은 진행되고 있으나, 수직적 확장은 몇몇 주제를 제외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의 주요목표가 빈곤감소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사회복지연구의 동향분석에서 빈곤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점(감정기 외, 2016)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이다. 빈곤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빈곤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옥스퍼드 빈곤·인간발전계획연구소'(OPHI: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를 필두로 한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논의에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approach)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반영되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는 소득빈곤(income poverty)에 이어 다차원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가 추가되었다. 빈곤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빈곤연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²⁾ 현재 국내의 개발도상국관련 빈곤연구는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국내 빈곤연구를 주도해온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개발도상국 빈곤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다차원적 개념과 범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주제에 대한 수평적 확장도 보완되어야 한다. 연구주제가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12) 국내 빈곤연구동향을 분석한 김교성(2011)의 연구를 보면, 소득, 소비, 자산, 주거, 의료 등의 물질적 빈곤에서부터 사회적 배제, 박탈, 실현가능능력, 주관적 빈곤 등의 비물질적 빈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는 하지만, 연구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확장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인지(gender-sensitive),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의 젠더 이슈를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여성빈곤은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다양한 사회문제(예: 조혼, 성매매, 인신매매 등)와의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젠더정의' 혹은 '젠더평등' 관점의 적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양성평등의 목표가 추가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성주류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젠더이슈가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개발도상국 연구에서 젠더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다문화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연구(김예랑·우수명, 2011; 정진옥, 2012)만 일부 진행된바 있다. 젠더 관점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제시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이 여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배제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안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을 자신의 성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연구가 부족하다.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연구 중 구체적인 현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주한나 외, 2007; 서미경 외, 2007; 박보운 외, 2007; 최유미, 2008; 우수명, 2012; 오단이 외, 2015; 고주애 외, 2016; 김윤섭 외, 2016). 그 역시 사전적 진단이나 이해를 위한 연구가 아닌 사후적 평가의 성격을 가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실천은 '제국주의적' 또는 '식민주의적' 접근이 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연대적 활동은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한다는 의미이다(Ife, 2007: 320). 사회복지 학문분야에서 지역사회 연대와 관련된 연구는 우수명(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은 현지의 토착화된 문화의 강점을 계승하는 가운데 '한국적'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하며(우수명, 2012: 51), 이러한 실천방안에 대해 학문적으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지역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이후 해외지역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 연구동향을 분석한 타 분야의 선행연구(임도빈 외, 2013; 김동훈 외, 2106; 박환보 외, 2016; 주한나 외, 2016)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지만,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의 연구를 포괄하는 추세 역시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해외지역 연구가 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구 및 CIS, 중동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경험적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연구가 학문적으로 초기단계임을 고려하더라도, 문헌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편중 현상이 시간의 경과에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보고서나 공식기관의 발표자료 등의 2차자료에 편중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활용한 1차자료의 수집이나 통계기관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통계방법을 수행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증거기반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며, 해당 국가의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밀접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지 주민과의 인터뷰나 참여관찰을 통한 생애사, 문화기술지 등의 질적연구의 실행도 낮은 자료 접근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복지 연구 허브의 구축 및 활성화이다.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연구주체가 자연스럽게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 접근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자료 수집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문헌연구 및 개괄적인 연구에 대한 편중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신진연구자의 발굴, 장기 프로젝트형 연구지원, 산학협력연구 등이 활성화된다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감정기(1991). “버마식 사회주의 하에서의 사회복지-사회주의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본 평가”.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220-249.
- 감정기·감미아·박미희(2016).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8(2): 185-211.
- 강영실(2008). “몽골선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역의 선교적 기능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15: 202-227.
- 강혜자(2013).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브라질의 사회복지 개혁 분석”. 『사회과학논집』, 44(1): 67-92.
- 고수정·김순양(2013). “복지행정분야 연구논문의 경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211-234.
- 고주애·김슬기·장미경·이세화·황혜지(2016). “네팔 지진 생존자들의 피해경험 실태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어린이재단 연구보고서』, 2016(1): 1-263.
- 권순원(1997). “한국의 빈곤퇴치경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사회보호제도의 발전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3(1): 183-206.
- 김교성(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43-82.
- 김대철(1999). “인도네시아의 공적연금제도”. 『보건복지포럼』, 28: 80-89.
- 김동훈·허장(2016).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연구동향과 함의”.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8(4): 435-442.
- 김미경(2008). “사회복지 분야의 운동적 성격 및 NGO적 위상을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연구』, 16(1): 95-112.
- 김수영·박지은·서현주·이윤재·손희정·장보형·서혜선·신채민(2011).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김예랑·우수명(2011). “국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155-184.
- 김윤섭·남은우·김연주·김혜경·김종구(2016). “페루 ODA보건사업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42(3): 77-90.
- 김인숙(2011). “한국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의 국제사회복지적 접근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 자료집』, 28-41.

- 김현정(2013). “한국 고령남성의 베트남 이주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4(2): 57-85.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도승자(2011).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통합적영적 리더십”. 『국제사회복지학』, 1(1): 55-78
- 민기채(2011).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사회복지연구』, 42(3): 5-32.
- 박명배·신정우·남은우(2014).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보건 분야의 시각에서 (2000-2014)”. 『대한보건연구』, 40(4): 89-105.
- 박미옥(2015). “정부, 기업, 개발복지 NPO의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통합적 고찰”. 『국제사회복지학』, 5(1): 22-48.
- 박보윤·박아경·문현주(2007). “캄보디아 주거시설 거주 청소년의 직업육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1: 719-720
- 박선희(2016). “국제사회복지론 교과목 지침서에 따른 대학교재의 분석”. 『국제사회복지학』, 6(1): 1-16
- 박숙경(2015). “한-몽 교류과정에서의 시설보호 확산 징후”. 『비판사회정책』, (46): 276-310.
- 박주현·김윤나(2016). “국제사회복지 연구동향: 세계빈곤과 불평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복지학』, 6: 1-25.
- 박환보·남신동·윤종혁(2016).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교교육연구』, 26: 75-102.
- 서미경·정지애·류주연(2007). “캄보디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육구조사 및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007(2): 645-650
- 성민선(2008). “몽골의 학교사회사업 제도화와 그 과제”. 『사회복지리뷰』, 13: 5-26.
- 아유씨바트슈흐·곽종형(2015). “몽골의 효사상 고찰-몽골 전통풍습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2(1): 91-105.
- 앤드류로서·마리크·최종호(2016). “약탈적 생산주의를 넘어”. 『아시아리뷰』, 5(2): 157-182.
- 안숙희(2010). “정부와 개발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1): 65-87.
- 오단אי·김성호(2015). “캄보디아의 한국 개발-NGO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315-339.

- 우수명(2012). “네팔품의 국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31-58.
- 이경구(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 규모와 분야 효과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 2004-1-25.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창호(2012). “ODA의 국내,외적 동향과 한국사회복지계의 과제에 관한 연구: 부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를 계기로”. 『사회복지연구』, 43(1): 305-337.
- 이혜원(2011). “재외동포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보건사회연구』, 31(4): 258-284.
- 임도빈 · 조원혁 · 차혜영 · 정지수 · 이민아(2013). “국제개발행정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메타 분석: 정부경쟁력 관점에서”. 『행정논총』, 51(2): 31-59.
- 정진옥(2012). “국제사회복지에서 인권 감수성 키우기”. 『국제사회복지학』, 2(1): 93-122
- 조윤호 · 김재환(2015). “국제 NGO의 사업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주한나 · 박근혜 · 윤현 · 성지현(2007). “방글라데시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NGO기관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007(1): 425-431
- 주한나 · 손혁상 · 이희진(2016).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20(4): 3-34.
- 최동주 · 문은영 · 강문구(2004).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과 아시아 여성복지정책 비교”. 『국제지역연구』, 8(1): 271-303.
- 최유미(2008). “캄보디아 도시 빈민지역 남자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282-314
- 최재성 · 정세정 · 조자영(2016).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68(1): 73-94.
- 한도현(1998). “베트남의 농촌개혁과 주민복지”. 『농촌사회』, 8: 161-185.
- 한재광(2010).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 『제25차 ODA 월례토크 자료집』: 2
- 한재광 · 박수정(2013). “한국 개발 NGO 의 국제개발협력 인식에 대한 연구”. 『어린이재단

-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3(8): 1-117.
- 황성철(2002).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 153-177.
- Bidwell S. & Jensen M.(2004). Chapter 3: Using a Search Protocol to Identify Sources of Information: the COSI Model in Topfer L-A, Auston I (Eds). *Etext 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Information Resources*. Bethesda, MD: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n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Health Care Technology (NICHSR),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Cyram(2017). *NetMiner Module Reference*. Seoul: Cyram Inc.
- Healy, L. M.(2010). 『국제사회복지』, 노충래(역). 서울: 학지사; *International Social Work: Professional Action in an Interdependen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ugman, R., Moosa-Mitha, M., & Moyo, O.(2010). Towards a borderless social work: Reconsidering notions of international social work. *International Social Work*, 53(5): 629-643.
- Ife, J.(2007). 『지역사회개발』, 류혜정(역). 서울: 인간과 복지; *Social Work and Human Righ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KCOC(2016).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서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KOICA(2016). 『2016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 Midgley, J.(2001). Issues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Resolving critical debates in the profession. *Journal of Social Work*, 1(1): 21-35.
- ODA Korea(2017).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접근일: 2017년 12월 1일.
- OECD(2008). Is It ODA?.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OECD.
- Price, D. J. D. S.(1965). Networks of scientific papers. *Science*, 510-515.
- Scott, J.(2000).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Abstract

Research Trends about Developing Countries in Social Welfare Discipline

Lee, Bora · Kim, Kyo-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ademic role of social welfare and to identify future directions and tasks for development by structurally grasping the research trends abou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o do this, we reviewed 66 studies published from 2007 to 2016, and conducted descriptive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themes. As a result, researches o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ocial welfare disciplin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research topics are also becoming more diverse. However, vertical and horizontal expansion of research subjects is required, and in particular, the need for in-depth discussion on poverty and gender issues is emphasized. More specifically, there is a lack of field-based research, and it is necessary to cover various regions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addition, close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developing country is also required to enable systematic empirical research.

Key words: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ing Countries

[논문투고일: 2018.03.30, 심사일: 2018.05.05, 심사완료일: 2018.05.15]